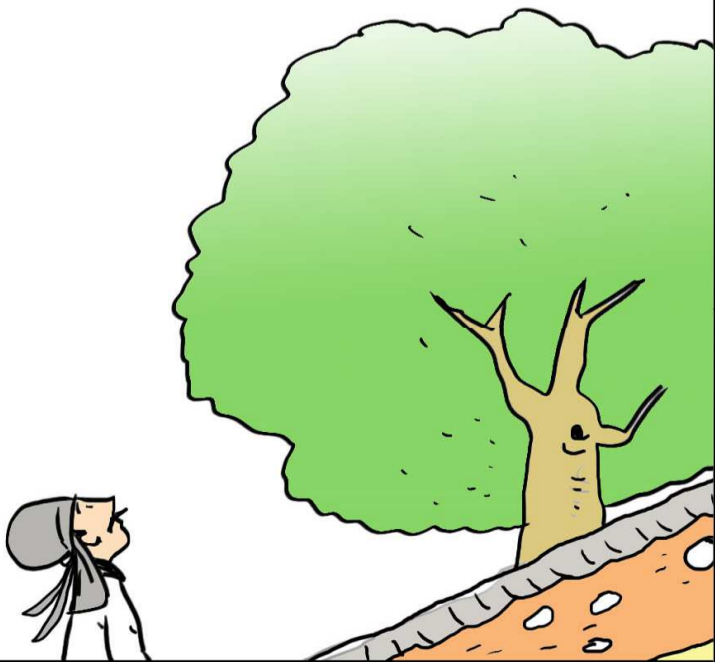


43. 밤을 돌려주다.

퇴계가 서울에 있을 때 옆집과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옆집에는 수십년 묵은 밤나무가 있었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었다.





가을철이 되면...

툑, 투두둑!

툑!



아침 산책을 나서는 퇴계의 집 마당에 알밤을 수두룩하니 떨어뜨렸다.

역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야. 이 밤 좀 보소.



옆집 나무 밤이 우리 마당에 떨어졌으니 이것이 우리 것이냐 옆집 것이냐?



퇴계는 남김없이 주워 담장 너머로 던져 주었다.

물으나 마나 옆집 것이지.

어차!

후두두둑!



어떤 때는 밤을 손수 주워 옆집에 돌려주었다.

내가 이걸 줍느라 아침 산책을 걸렀소.

이렇게 죄송할 수가...



그러던 어느 날

웬 밤입니까?

출출할 때 드시라고 좀 가져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도로 가져 가세요.

아닙니다. 우리 마당으로 떨어지는 밤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먹고 남습니다.



그러하니 선생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선생 가족이 잡수십시오. 앞으론 돌려줘도 안받기로 했습니다.



뜻은 고맙습니다만 남의 집 과일을 어찌 함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인 제가 말씀 드렸으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마당에 떨어졌다하더라도 내 소유가 아닌 것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옳은 일입니다.

당신께서 허락했다해서 내 마당에 떨어진 밤을 아이들에게 나눠 먹이면

清廉



아이들은 그런 일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무슨 일을 저지르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빠, 우리 마당에 떨어진 것은 모두 우리 것!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거참, 거참!



퇴계는 옆집 사람의 호의를 거절한 곳이 미안했던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밤나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무슨 신세를...?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식구들은 더위를 모른채 서늘히 지낼 수 있어서 좋고,



또한 밤을 주워 담장 너머로 던질 때마다 허리운동이 되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하하, 과연 그러하군요



이웃은 퇴계의 대쪽같이 결백한 성품에 머리를 숙였다.

이런 분이 계시니 그나마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로구나...